

# 전국개인택시- 연합회신문

신년호 | 2022년 1월 21일

발행인 박권수 회장

편집인 유병철 전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 ●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 플랫폼기업 독점 횡포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이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고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인년 호랑이띠는 호랑이 중에서도 아주 귀한 검은 호랑이로서 고집과 소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도 호랑이와 같은 기상으로 개인택시업계를 위하여 일로매진하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유독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등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여러분 덕분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에는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하여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 여러분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사업자 여러분과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님의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

을 편성하여 1차 전 국민 대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5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합회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국의 모든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건의하여 지급토록 노력하였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횡포에 개인택시업계가 중심이 되어 관련 업계와 협업하여 정관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택시 4개 단체 성명서 발표(21.9.16, 9.24)를 시작으로 9월 28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대리운전업계, 택시업계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규제 추구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과의 면담(21.10.21.)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방지를 위한 택시업계 상생방안으로 불공정 배차기준 시정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주도하는 택시-플랫폼기업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10월 18일에는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카카오모빌리티의 횡포에 저항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분수 앞, 국회, 카카오본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규탄대회를 10월 28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5일과 11월 3일에는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카카오모빌리티 독점방지를 위한 택시업계 상생방안을 촉구했습니다.

LPG 가격 폭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을 조기에 막기 위해 택시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유사, 청와대, 국무총리,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중기부, 여야대표에게 택시연료 LPG(부탄)가격 안정화와 함께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택시운임요금 현실화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개인택시 차량취득세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2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는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사업자 여러분과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사업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개인택시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금년 3월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학연, 지연 등 모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나라와 개인택시업계를 위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사업자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고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2년도 변함없이 티머니onda가 택시사업자님들과 함께합니다.

Tmoney onda

택시사업의 미래, 티머니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0원!

A.I를 통한 최적 배차!

조합과 티머니가 함께 만들어가는 택시 호출 서비스!

택시사업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갈  
티머니onda와 함께해 주십시오.



티머니 앱미터기 출시!

• 편리한 요금개정

• 탄력요금제 적용 가능

• GPS(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및 차내 장치 연동으로 정확한 요금 산출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시·도 조합 이사장의 임인년 신년사

(壬寅年)

연합회신문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www.개인택시.org)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연합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순선 이사장

존경하는 우리 16만 전국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우리 업계의 위협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업권 수호에 매진하여 우리 개인택시가 한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영업환경에 놓여있지만, 우리 전국의 개인택시가 힘을 합쳐 택시 호출시장의 거대 독점기업인 카카오T에 대항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면 이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카카오T와 같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개인택시사업자 모두가 자주적으로 택시시장의 주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16만 전국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택시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연합회 부회장

####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호덕 이사장

돌이켜 보면,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우리 택시업계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택시호출 시장의 8~90%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호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콜 몰아주기 논란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택시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2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택시의 미래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 이를 극복하는 훌륭한 저력이 있습니다. 전국 16만 개인택시 조합원 모두가 굳건하고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옛부터 호랑이는 호축삼재(虎逐三災)의 의미가 있어 삼재를 막아주고 병난, 질병, 기근의 세가지 고통에서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올 한해 호랑이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연합회 부회장

####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진섭 이사장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업계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전국 시·도조합마다 대기업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호출앱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체 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면 대기업이 독점하여 주도하는 플랫폼에 맞서 개인택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님들의 권익보호와 수익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인년 밝은 새해를 맞아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하며, 코로나 극복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연합회 부회장

#### 전라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근하 이사장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택시업계를 비롯해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심각한 위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하루 하루 고생하시는 조합원들의 고생이 얼마만큼인지 감히 가늠할수 없으며 부디 이 시국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뿐입니다. 그런가운데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차량의 철저한 방역활동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주신 조합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와 함께 우리 업계와의 혁신·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에 개인택시를 포함시켜 소득의 감소와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합회와 함께 힘써 힘든 여건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열한 생존경쟁과 각박한 세상 인심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면서 변화가는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2022년 임인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날이 조속히 오길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창기 이사장**

임인년 새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 대구개인택시 조합은 지난 한 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러한 어려운 점을 대구시에 적극 요청하여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지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택시감차 사업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시장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18대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대구개인택시조합은 항상 연합회 사업의 최전선에서 조합원님들을 위해 시범적인 사업 등에 항상 발전적인 모습으로 임하고 있으며 각종 투쟁의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선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에 계신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승일 이사장**

현재 택시업계는 예견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손님의 감소로 매출감소와 택시플랫폼사업의 제도화로 인한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및 불공정 배차로 인한 조합원들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전기차 부제폐지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새로운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도 끈기있게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발이 되어 대국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 지역의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무한의 책임을 통감 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택시업계에서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한편, 택시부제 폐지로 전기차와의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세계 경제의 안정화로 LPG 가격도 안정되어 택시 산업의 시름이 해소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모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 하나하나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승두 이사장**

그 어느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년이 지나 가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우리 택시 업계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전국의 16만 개인택시 조합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카오는 현재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대책만을 내놓으며 그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업계는 내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카카오 본인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대기업의 횡포이며 이에 동조할수록 우리 택시업계의 피해만 늘어가게 되는 것을 볼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택시 시장의 독점적 횡포와 불공정 배차로 인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카카오에 맞서기 위해서는 16만 개인택시 조합원이 단결하고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그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부터 우리 택시업계의 업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나기주 이사장**

전국의 개인택시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호랑이의 강한 기운을 받아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콜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의 호출 몰아주기는 여전히 개인택시의 단합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근 들어 부제 없이 운행하는 전기택시의 급격한 증가는 자연적으로 개인택시의 증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각 조합에서 운영하는 충전소의 미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 보다 개인택시 업권에 대한 도전과 변화가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럴수록 전국 개인택시의 연대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대전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모범적인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울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백형선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지만 검은호랑이해인 임인년 새해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는 한해가 되시고 즐거운 일들만 넘쳐나시길 바라면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물론 우리의 영업환경 또한 최악이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항상 희망과 평정심을 가지 시어 난관을 극복한다면 올해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을 믿어 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저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여러분을 위한 수익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새날 같은 발돋움 세우고 범이 내려와서 코로나가 퇴치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을 희망하면서 조합원의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건잡을 수 없이 늘어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택시업계를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날이 갈수록 피해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낯이 고생 많으신 조합원님들의 고통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거라 생각하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16만 5천여 명의 개인택시 가족은 흔들림 없이 하나로 뭉쳐야 이 난관을 극복하고 각종 택시플랫폼가맹사업을 비롯한 택시업계의 제도적,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연합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 이사장들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도 어김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인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우리 택시업계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2022년 새해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충청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일규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전국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루하루 이겨내며 힘드신 나날을 보내시느라 조합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며 이를 극복해내신 조합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 카카오톡 등 플랫폼 가맹사업의 무분별한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 정책은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없애주려는 희망보다는 좌절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국의 모든 개인택시 조합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우리 업계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해 나아가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전국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전국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선기 이사장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고비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숭한 고비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

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연합회를 필두로 하여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국가의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정책에 우리 개인택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도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022년 임진년에는 우리 16만 개인택시 전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우리만의 독자적인 플랫폼 중개사업앱이 탄생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의 다양화 다변화 속에서 우리만의 굳건한 택시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전라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상익 이사장

코로나19로 어느 해 보다 가장 힘들었던 지난해를 되새기며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안정과 화합 속에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한해, 우리 택시업계는 많은 이슈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며, 택시사업 불황으로 행복했던 기억보다 불편했던 기억들이 더 많으셨을 겁니다. 택시의 어려움은 그칠 줄 모르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택시정책 실현을 위해 이사장들과 힘을 합쳐 택시요금 전국 일원화 및 동시인상, 대차폐차비용 일부 정부지원, 65세 이상 자격유지 검사비용 무료, 카카오 콜 독과점 방지법 제정, 2022년 종료되는 차량구입 부가세면제 계속연장 등 택시운행에 따른 각종 비용을 보조나 면제받아 영세한 개인택시 사업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2022년에 새해에는 여명을 밝히는 태양처럼 조합원 가족이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고 작은 선행에도 감동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행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광호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어면서도 국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합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 힘든 시기이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해이기에 그 어느때보다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독과점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플랫폼 가맹사업 등의 문제점과 제도적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연합회와 조합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개인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원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에 대비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을 지키시기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경상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정곤 이사장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입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국토부의 개인택시 특별지원금 지급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으나, 그마저도 실질소득은 줄었지만 이동경로 확인을 위한 카드결제 손님의 증가로 카드매출만을 가지고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 정부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수많은 개인택시들을 생각하면 현장을 살피지 못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차량의 부제 해제라는 이중적 잣대는 어떠한 면을 살펴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택시정책이 수립되는 새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도 3년이 되어 갑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조정 요령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상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역사에서 한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최소한 올해 안에는 현실 반영이 된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영배 이사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을 보내고 희망찬 임인년을 맞이하면서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 가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급증시켜 2년여간 우리 택시업계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우리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등 일부만 지원하는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다같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올 한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로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이끌어 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등 미래를 위하여 택시업계도 맞춤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향후 관련 법 등을 개정하여 택시산업이 존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석

# 국회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독과점 심각, 국정감사 통해 부각

- 정부·국회·택시·플랫폼 참여 '상생협의체' 이뤄 낼 것
- 희망회복자금 증액 연합회 요청 받아 들여 추가 지원 이끌어
- 전기택시 구입 지원금, 100원 택시 예산 등 확대 필요성 공감

19대 국회 이후 내리 3선 중인 이헌승 의원은 10년째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 특성 상 교통분야 특히 택시 산업에도 정통하고 개인택시연합회 등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플랫폼 독점에 따른 불공정 폐해가 집중 조명되는 과정에 큰

기여를 했고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상생안을 토대로 개인택시업계가 희망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우선 지원, 100원 택시 예산 확대 같은 다양한 재정 수요의 필요성도 공감한다는 이헌승 위원장을 만나 개

인택시 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 봤다.

**Q**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전국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지난 10년간 줄곧 국토교통위원회 한 곳에서 활동해왔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30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토지, 건설 등의 국토 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 분야의 정책과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핵심 상임위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토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들은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는 과정에서 자주 봐서 그런지 길에서 개인택시만 봐도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의 이동을 편안하게 도와주시는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함께 서민들의 발이 되어 주신 택시업계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자리에서 코로나19로 힘든 개인택시

업계를 위해 애써주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지원책이 있었는지요?

**A**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택시 사업자분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 등 개인택시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개인택시연합회는 국민의힘을 통해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회의 요청을 받아 들여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인택시사업자 약 16만5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해 1월 6일부터는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사업자 한분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한 수입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A** 2021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고 개인택시업계 현장의 소

리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 두 분을 참고인으로 모셔 택시업계가 느끼는 여러가지 불편부당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국회 의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독과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대책, 과도한 수수료 체계개선, 국회 및 정부가 주도하는 택시와 플랫폼 업체간의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 제출을 약속받았고 결국 지난 해 11월초 상생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상생안을 토대로 저희 국토위원장실이 직접 나서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협의점을 찾아가고자 의견을 조율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 플랫폼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인택시

업계가 원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이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는 개인택시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A**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 종일 차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도 신경 쓰며 운행해주시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개인택시업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문제 이외에도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택시 구입 시 보조금 우선 지원 및 지원금 확대, 교통취약 지역을 위한 공공형 택시 사업인 이른바 100원 택시의 예산 확대, 수요 초과 수용 능력 한계에 이른 교통안전체험센터의 추가건립 필요성 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뷰·김도길 기획부장>

### ※ 국회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은!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및 경영학과 졸업
-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전)
-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전)
-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전)
- 제19, 20, 21대 3선 국회의원(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현, 10년 연속)
-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현)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충북개인택시조합 전일규 이사장

# 충북조합 새 사령탑 전일규 이사장, 취임식 이틀 후 도지사 만나

- ✓ 택시요금 현실화 등 '공정한 영업환경 구축'요청, 심터 지원도 주문
- ✓ 전기택시 부제 폐지는 형평성에 위배, 지부 등에 전기차택시 충전시설 확충도 필요
- ✓ 개인 이동 모빌리티 보급으로 이용자·택시 안전권 위협, 반대 1인 시위
- ✓ '월 5회 이상 충북 증북부, 남부권 지부서 상근 근무하며 현장과 소통'공약



충북개인택시조합 전일규 이사장

막연하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택시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영업 환경을 구축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자본이 운송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택시사업자들은 부당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는 공공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여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택시는 요금 결정권조차 지자체가 행사하면서 규제만 받고 있다. 또, 국민 건강 보전을 위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운행 거리가 긴 택시 사업자들이 전기,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데 운행 부제를 제한적으로 예외 적용하면서 또 다른 차별이 벌어지기도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공정한

영업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지난 해 10월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돼 12월 공식 임기를 시작한 충북개인택시조합 전일규 신임 이사장을 찾은 날, 조합 업무 파악과 새해 사업 계획 수립에 한창 분주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향후 4년 동안의 조합 경영 방향이나 조합원 복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했는데 가장 함축적인 메시지는 '공정한 영업 환경 구축'으로 요약했다.

전일규 이사장이 구상하는 '공정한 영업 환경'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영업 환경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나 지자체, 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설득하고 관철시켜겠다'고 전일규 이사장은 말했다.

실제로 전일규 이사장은 취임식 이틀 후인 지난 달 17일에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와 면담하고 택시요금 인상 등 공정한 영업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 충전소 대표·LPG단체 회장 역임, 인적 네트워크 풍부

충북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청주가 유일하게 직영 LPG충전소를 보유, 운영하



전일규 이사장은 지난 달 15일 취임식을 가졌는데 이틀 후인 17일 이시종 충북도 지사를 면담하며 충북 조합의 다양한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임기가 시작된 직후 충주를 찾은 전일규 이사장이 조합원들 대상으로 안전 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고 있다.

1990년대 청주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출자해 첫 직영 LPG 충전소를 확보했고 2호점을 임차 하면서 현재 두 곳의 계열 LPG충전소를 운영중이다.

전일규 이사장은 청주개인택시LPG충전소(주)가 처음 설립되던 당시 사무국장을 맡아 주주 모집, 충전소 인허가 등의 전반적인 작업을 지휘했다.

최근 15년 동안은 충전소 법인 대표 이사로 재직하며 개인택시 필수 연료인

LPG의 공급 가격을 낮추고 주주인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영 활동에 매진했다.

충북지역 모든 LPG 충전소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충북LPG산업협회 회장도 지냈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는 7~11대까지 5대에 걸쳐 이사직을 수행했다.

충전소 기업을 경영했고 LPG 충전사업자 단체 회장을 맡아 회원사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정관계와 에너지 업계 다양

한 인사들과 교류했으며 개인택시 분야에서는 이사 직분으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이력과 경험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충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도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개인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세월 개인택시 업계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기업 플랫폼의 불공정 배차 문제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LPG가격은 폭등해 택시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공제 보험료율은 오르고 있고 택시 요금은 수년째 동결 상태이다. 개인택시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 업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수익은 감소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 이사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 개인 이동 모빌리티 보급 맞서 1인 시위

전일규 이사장은 조합 이사 시절에도 충북 개인택시 업권을 저해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에 앞장서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도한 공유형 개인 이동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집회를 주도했던 활동이 대표적이다.

지난 해 카카오 측은 청주시와 협력해 전기자전거,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 수단을 1천대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일규 이사장은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주도했고 그 결과 보급 댓수가 400여대 수준으로 줄었다.

전기자전거 같은 공유형 개인 이동 모빌리티 보급을 반대하며 청주시에 제시했던 명분도 설득력이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 이동 모빌리티 보급이 늘어나면서 공공 운송 역할을 하는 택시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동 모빌리티 이용자나 택시 운수 사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들이 공유형 개인 이동 모빌리티를 보급하는 것이 단순한 허가 사항으로 정해진 요건만 준수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청주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 절차에 앞서 시민의 안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가를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허가를 고민한다면 개인 모빌리티가 확대 보급되는 것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전일규 이사장은 말했다.

이사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 12월 1일

이었는데 코로나 방역 등 여러 이유로 취임식은 보름뒤인 12월 15일에 열렸다.

하지만 취임식을 전후해 다양한 공격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사장 출마 당시 ‘월 5회 이상 충북 북부와 중부, 남부권 지부에서 상근 근무하며 지역 조합원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직후 충주 지역을 방문해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며 지역 조합원들과 교류했다.



전일규 이사장이 조합 대의원 시절이던 지난 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 항의 집회에 참석해 불공정 독점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이사장 당선 이전인 지난 해 초 전일규 당시 조합 대의원이 청주시에 전기자전거 등 공유형 개인 이동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도를 반발해 1인 집회를 주도했다.

취임식이 열린 이틀 후인 17일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해 충북 개인택시 업권을 위협하는 안건들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힘을 실어 주었던 요구는 ‘택시요금 현실화’였다.

전일규 이사장은 연합회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택시요금은 전 세계 60위권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

라며 ‘택시 기본요금을 2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도지사와의 면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객 수요는 줄고 LPG 연료비는 급등하면서 택시 사업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택시 요금을 인상해 수익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도에서도 현재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전일

인 등을 파악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금 체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택시 승강장 확대, 쉼터 개설에 지자체가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기나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 지자체들까지 나서 부지나 건축비용을 제공하며 개인택시 사업자 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일규 이사장은 ‘대중 교통의 중요한 축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휴식이 보장되고 건강이 확보돼야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택시 쉼터 구축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충북도는 택시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며 충북도에 건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등을 중심으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모색중인데 충전설비는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LPG충전소나 지부 사무실 등에 충전기 설치 지원도 요청했다.

전일규 이사장은 “자가용에 비해 영업용 차량의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대기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주시 등에서는 올해 전기택시 보급 목표를 지난해 대비 두 배인 100대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충전 기반 설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지역에 충전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전기·수소택시에 한정해 부제를 폐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택시 부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도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주시의 경우만 해도 전기택시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5~600대에 달하는데 지자체에서 교체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규모는 10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더 많은 택시 사업자들이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대기질 개선에 협조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으로 무공해차로 먼저 전환한 사업자만 부제 폐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부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일규 이사장은 ‘부제 폐지를 위해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법인택시사업자, 법인택시노조에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힘을 합쳐 자격유지제도 폐지, LPG 가격 경쟁력 확보, 전국 통합 콜 구축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글·김신)

규 이사장의 주문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일규 이사장은 광역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택시요금 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다며 개인택시연합회를 통해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다 보니 선거를 의식해 택시요금을 쉽게 현실화하지 못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금 인상 요

## [현장에서 : 카카오 호출 앱 대항마 티머니londa, 대전에 뿌리내리다]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 호출 앱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5,337명 조합원 중 88%에 달하는 4,670명이 '티머니londa(온다)'에도 가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브랜드에 가입한 개인택시 사업자도 9명에 그치며 6대 광역시중 가장 적은 가맹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 택시 운송 시장에서 티머니londa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항마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전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응집력 때문이라고 나기주 대전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말한다.

호출 앱 독점을 통해 운송 시장 패권을 장악하고 택시 사업자를 종속시키려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행태를 방관하지 않고 티머니londa에 적극 가입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티머니londa가 단순 호출 중개 플랫폼 역할에 충실하고 택시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 타 플랫폼과 달리 별도의 수수료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점도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콜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부족해 수수료를 인상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불공정 배차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을 정도로 독점 횡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비해 티머니londa가 택시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대전개인택시조합은 지난 7월 티머니, 하나은행과 협력 강화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결제, 마케팅 지원, 티머니londa 가입 택시 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받았다.

이와 관련해 티머니londa는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승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는 마일리지, 택시 승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티머니londa가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는 승객들의 호출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대전개인택시조합 김대환 전무는 설

카카오와 달리 수수료·승차 거부 없어 승객 호응도 높아  
지역화폐 결제 가능, 기사·승객 상대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  
'카카오 끄고 티머니londa 콜 가동해도 수익 늘어'경험 사례도 공유  
고객 호출 거리 반경 가깝고 배차 연결 건수도 증가

명했다.

티머니londa 플랫폼에서 대전 지역 화폐가 승차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운전자들과 소통, 운영 문제점 개선에도 적극적

티머니londa를 비롯한 여러 호출 플랫폼 브랜드와 달리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들의 호출 목적지를 노출하는 '승객 골라 태우기'를 허용하고 있다.

티머니londa의 하루 콜 배차가 1만건을 넘으면 모든 조합원들이 카카오 호출 앱을 삭제하고 티머니londa로 일원화하자며 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할 정도이다.

티머니londa 시스템 운용 과정의 개선점을 모니터링하고 주변 조합원들에게 장점을 적극 전파하는 충성도 높은 조합원도 적지 않다.

대전조합 신창균 대의원이 대표적인 티머니londa 전도사인데 '코로나 19로 승객이 줄었는데 콜 시장을 독점하는 카카

오로 앱 실행이 중단되고 요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승객과의 1대1 배차로 콜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현재는 5대1 배차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신창균 대의원의 현장 체험 과정을 바탕으로 본사에 개선을 제안하여 받아 들여진 결과물들이다.

신창균 대의원은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티머니londa 가입률과 고객 콜 이용이 늘어나면서 카카오측의 방해공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잠식 위기를 느끼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실적으로 배차에 응할 수 없는 반경 6km 주변의 콜까지 노출시키며 호출 빈도를 늘려 티머니londa로 호출된 콜이 순식간에 파묻혀 사라지거나 배차에 응하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창균 대의원은 해결방안도 제시했는데 '카카오 앱을 끄면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앱을 끄고 티머니londa만 실행하면 불필요한 배차 콜 남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운송 수입 측면에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카카오 앱은 호출 승객들의 목적지가 노출되면서 수입을 끌어 올려야 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장거리 이동 고객들을 골라 태우기가 유리하다.

그런데 신창균 대의원이 티머니londa 앱만 실행하며 러시아워 시간대의 운송 수입을 직접 검증해보니 카카오앱을 병행할 때 보다 오히려 늘었다.

'장거리 이동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 앱에서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기다리는 시간과 정체 구간을 거치면서 지체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티머니londa 앱을 통해



▲ 대전개인택시조합 나기주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티머니, 하나은행과 '티머니londa의 성공적인 런칭 및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한 공동추진 협약'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시 수요가 출퇴근 러시아워 때에 집중되는데 고객들을 선별해 승차 요금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함을 티머니londa는 포기하고 있다.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만들겠다'는 티머니londa의 운송 플랫폼 경영 철학 때문인데 대전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티머니londa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대전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하루 평균 티머니londa 콜 배차는 6,000~7,000건에 달하고 있다.

오모빌리티의 불공정 배차까지 더해져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카카오콜에 대응해 택시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에게 티머니londa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균 대의원은 티머니londa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티머니 본사와 공유해 개선 방향을 같이 마련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티머니londa가 블루투스 환경을 채택하고 있어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일시



▲ 대전개인택시조합에서 티머니onda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목적지 불분하고 더 많은 승객을 받는 방식이 수입이 더 높았다며 스스로의 경험을 주변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콜 지점과의 이동 거리나 위치 정확도, 네비게이션 반응 속도 등도 티머니onda가 월등하게 효율적이고 유리하다고 설

명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 위치에서 반경을 기준으로 호출이 표시되는데 반해 티머니onda는 실제 도로를 운행해 승객의 호출 지점까지 도착하는 네비게이션상의 정보 기반으로 거리가 표시되고 승객의 탑승 방향까지 고려해 배차되기 때문에 고객과 만나는 시간이나 동선 관리가 효율적이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는 신창균 대의원의 경험담이다.

대전조합 오진학 조합원도 출퇴근 러시아워 때 티머니onda 앱만 사용한 결과 운송 수입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티머니onda가 대전 택시 시장에 진출한 이후 카카오 호출앱과 병행 사용해왔는데 실제 배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카카오 앱을 차단하고 티머니onda에 집중한 이후 고객 콜과 배차 성공률이 높

아지면서 수입 증가로 연결됐다는 경험이다.

오진학 조합원은 “카카오 앱의 경우 T블루 처럼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료 택시 위주로 좋은 콜을 몰아주고 일반 가입 택시에게는 반경 6~7km 떨어져 실제로는 응대할 수 없는 콜을 배차하고 있다”며 ‘카카오앱을 켜놓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티머니onda콜은 반경 2km 이내 콜을 배차하고 있어 고객을 만나 운행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티머니onda를 이용하면 택시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티머니onda 콜만 잘받아도 운송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슈인터뷰 대전개인택시조합 나기주 이사장

# 카카오 앱 독점 횡포 대응 위해 공식 플랫폼으로 ‘티머니onda’ 선정

공정성 확보 위해 전국 최초 ‘플랫폼 택시 T/F’가동해 심사 평가 상생 기대감에 조합원 대부분 가입, ‘승차 거부 없다’ 승객 반응 긍정적 버스, 지하철과 상호 연계 통해 대전시 택시 공공앱 구축도 기대



▲ 대전개인택시조합 나기주 이사장

카카오가 대전 지역 택시 호출 콜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 법인택시에 승객 쏠림 현상이 심화됐던 것인데 대전개인택시조합은 티머니onda와 제휴해 조합원들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독점 횡포에 대응하고 있다.

**Q** 대전 개인택시 플랫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조합은 카카오 T 블루의 콜 독점 횡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0년 3월, 조합 플랫폼 택시를 선정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인 T/F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플랫폼 택시 T/F’팀을 가동했다.

이후 티맵, 우버, 마카롱, 티머니onda 등 여러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우리콜 등 중소 호출업체와 대전지역 브랜드 콜인 양반콜에도 사업 제안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성 확보에 노력했다.

사업 제안에 참여한 업체들은 회사 대표나 실무 책임자가 직접 조합을 방문해 설명, 질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T/

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티머니onda를 대전조합의 플랫폼 택시로 선정하게 됐다.

**Q** 티머니onda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매우 높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승객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A** 대전개인택시 중 9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티머니onda에 가입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

조합에서 티머니onda를 공식 플랫폼 택시로 선정한 영향도 있겠지만 카카오모빌리티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횡포에 대응해 운송 시장의 주도권을 택시 사업자들이 되찾고 소비자들에게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택시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이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승차 거부가 없는 티머니onda에 대한 승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거리 이동 등 택시 사업자 수입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호출에는 택시가 잘 배차되지 않는데 티머니

onda를 통하면 택시가 온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브랜드 평판이 매우 좋다.

**Q** 티머니onda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대전개인택시조합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A** 티머니onda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의 공식 협력 플랫폼 택시이자 서울시가 대주주인 (주)티머니가 설립한 플랫폼 택시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익창출이 가장 큰 목적인 카카오, 우티와 달리 일정 부분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고 현재는 승객과 택시 사업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티머니가 우리나라 공공교통 결제 시스템을 주관하는 업체라는 점도 대전 개인택시 업계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티머니onda 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 공공교통인 버스, 지하철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 시스템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대전시의 택시 공공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김신)



이슈 인터뷰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부 조동욱 상무

# 목적지 호출 없어 월등한

## 배차 성공률, 고객 선호도 높아

중장거리 승객 비율 높아지며 택시 사업자 만족도 커져  
 서울·대전·구미·춘천시 호평, 전국 택시조합 문의도 급증  
 승객·택시 대상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브랜드 전파 확산중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플랫폼 독점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택시 운송 사업의 주도권이 특정 대자본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고 관련 플랫폼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하면서 택시와 승객이 만나는 과정에서의 카카오모빌리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가 택시 콜 플랫폼인 '티머니onda'를 출시하면서 시장 판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티머니는 서울시가 36.16%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운영 중인 택시 호출 플랫폼인 '티머니onda' 역시 '부르면 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승차 거부 없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공식 호출 앱으로 선정됐고 대전개인택시조합 등과 제휴를 맺으며 호출 앱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를 통해 티머니onda의 차별점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춘천 등 티머니onda가 진출한 지역을 뛰어 넘어 전국적인 택시 호출 앱으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Q** 티머니onda의 향후 확대 계획은 어떤지.

**A** 티머니onda는 지난 해 4월 100만 누적다운로드를 돌파했고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택시 호출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티머니onda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택시 승차 경쟁이 심한 출퇴근, 심야 피크시간에 배차 성공률이 높아 이를 경험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목적지 안보여도 승객이 부르면 오는 착한택시'라는 입소문을 타고 있어 추후 더 큰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택시 사업자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택시업계 종사자 사이에서 '티머니onda는 우리 앱'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등 여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서비스 오픈 초기에는 목적지 미표출로 단거리 승객 위주 이용이 많을 것이라는 택시 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중장거리 승객 비율이 높은 것을 직접 경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티머니onda에 대한 택시 사업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티머니onda 택시 신규 가입을 문의하는 전국 지역 택시 조합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회사측에서도 티머니onda 서비스가 정착중인 서울, 대전, 구미, 춘천 등을 뛰어 넘어 수도권과 대구, 경주 등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 지자체별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Q** 카카오모빌리티 등 타 플랫폼 사업자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A** 기존 택시 호출앱의 '목적지 표출' 기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택시 호출앱과 티머니ond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객이 승차하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티머니onda는 기사가 호출을 수락하고 승객이 탑승해 택시 미터기의 주행 버튼을 눌러야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다.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표출하지 않고 AI로 배차하면서 승객 골라 태우기를 방지할 수 있다.

택시 본연의 기능인 '승객이 호출하면 어디든 온다'라는 기본에 집중한 서비스로 말 그대로 승객을 골라 태우지 않는 '착한 택시'가 바로 티머니onda이다.

**Q** 티머니onda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A** 지적하신 것 처럼 '착한 택시 기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이 없이는 티머니onda가 추구하는 운송 문화 정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티머니onda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사업자 분들은 현재의 플랫폼

사업 폐해를 정확히 인지하고 냉철한 판단 아래 택시 업계를 위한 호출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티머니onda에 가입한 택시 사업자들은 티머니onda에 대한 로열티가 매우 높고 그런 '주인의식'은 타 플랫폼 사업자 대비 월등한 배차 성공률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택시 콜 앱 서비스가 손님들의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울 때 티머니onda 기사님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티머니onda'는 '착한 택시 기사님'들이 선의를 가지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다양한 혜택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티머니onda는 단순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택시기사 마이리지 지급, 택시 승객을 위한 커피쿠폰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 시 기사분들께 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미터기 대리점을 통해 기사분들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Q** 최근에도 티머니onda와 관련한 프로모션이 진행됐는데 어떤

의도로 기획됐는지.

**A** 승객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맞아 티머니는 택시 승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티머니onda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면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택시 이용권으로 되돌려 주는 프로모션을 열었다.

총 2,022명을 추천해 '티머니onda 택시 이용권'을 증정했는데 1등 7명은 1회 1만원 금액으로 365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등 15명에게 30일 택시이용권을 제공하고 5등에게도 기본요금 택시이용권 1매가 지급됐다.

티머니onda 신규 가입 고객에게 택시비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티머니onda 택시 탑승 횟수를 인증하면 추천을 통해 갤럭시 버즈 프로, 갤럭시 스마트태그 등 다양한 선물도 제공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 거부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티머니onda 택시를 호출하면 곧바로 배차되는 '승차거부 없는 착한 택시'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확대 전파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

프로모션을 통해 티머니ond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수록 택시 수입이 증가하며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기회가 넓혀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향후에도 티머니는 서울, 대전, 구미,

[ 제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에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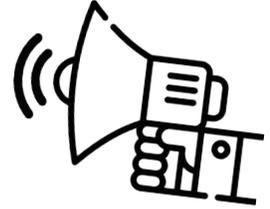
# 택시산업 공정경제 실현 위한 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성 필요

자유로운 영업환경 조성·친환경택시 확대보급·공공형 택시 활성화·교육 인프라 예산 늘려야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오는 3월 9 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개인택시 업계 현안과 관련한 건의 내용을 전달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자본의 택시 플랫폼 독과점 피해 해소, 택시부제 폐지, 공공형 택시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현안

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내용을 취합해 여야 직능단체 관련 조지를 통해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다음은 건의 내용이다.



## 1 국회·정부 주도 상생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

- ① 택시업계, 플랫폼 기업간 상생협의체 구성
  - (현황) 과거 상생 발전을 위한 국회·정부·카카오모빌리티·택시 4개 단체 간 사회적 대화협 합의('19.3.7.)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방적인 택시 플랫폼 운영정책으로 사회적 갈등 심화
  - (건의) 국회·정부 주도 택시 법정단체와 플랫폼기업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불공정 배차,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정 역할 수행
- ②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여객법 개정 추진
  - (현황) 카카오T(플랫폼중개사업)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따른 불공정 배차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정책 등으로 이용시민과 택시종사자 피해 발생
  - (건의) 플랫폼운송중개사업(Type3) 제도 개선으로 ① 공정배정, 중개요금 조정 등 개선명령 신설 ② 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목적지 미표시) 신설 ③ 위반 시 벌칙 부과

## 2 자율적인 택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택시부제 폐지

- (현황) 플랫폼운송사업(Type1), 전기·수소차를 이용한 택시에 한정하여 부제(의무휴무)를 미적용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간 차별조장 및 갈등초래 → 기존 LPG차량을 이용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택시부제(의무휴무)에 따른 영업운행 일수 제한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 (건의) 택시부제 폐지를 통한 택시운수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자율적인 택시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택시 승차난 해소 등 대시민 택시 서비스 개선

## 3 친환경택시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강화

- ① 전기택시 전용 예산항목 편성 및 지원확대
  - (현황)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친환경택시 전환을 위해 정부·지자체는 택시부제 미적용 및 택시 보조금('21년 기준 200만원) 추가 지원
  - (건의)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친환경택시 전환 가속화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국고·지방보조금 편성 시 전기택시 전용 별도예산 편성 및 택시 보조금 상향('22년도 국비 보조금 약 1조7천억원) 필요
- ② 전기차 보조금 환수조치 제도 개선
  - (현황) 전기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에 대한 의무운행기간(2년) 및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 단,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 시 보험사 차량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 환수 조치
  - (건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사업용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 활성화를 위해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 및 자부담 초과 차액 환수 제외
- ③ 모범·고급형 전기택시 자동차 출력기준 완화
  - (현황) 최고출력 190Kw 이상(현행 모범형 택시기준)\*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는 ①국산차 최상위 모델 또는 ②고가의 수입차로 차량선택 극히 제한
  - \* 최고출력 “중형(80Kw 이상), 모범형(190Kw 이상), 고급형(220Kw 이상)”
  - (건의)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기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범·고급형 친환경택시 기준 완화(→모범 150Kw, 고급 200Kw)

## 4 공공형 택시 사업 확대

- ①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 (현황) 지방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저하 및 이용자 고령화로 기존 노선버스 이용 불편 심화 → 공공형 교통수단 운영 확대 추세 (군지역 외 전국 사업범위 확대('18년))
  - (건의) 공공형 택시 사업효과 제고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교통취약 지역의 이용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공공형 택시사업 국가예산 확대 ('22년도 예산 약 100억원 →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고려 2배 이상 증액)
- ② 군지역 11인승 이상 승합택시 도입
  - (현황)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운행 불가('16.2.23. 신설)
  - (건의) 교통불편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교통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군 지역 대상 승합자동차 운행 허용

## 5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 향상 방안

- ① 택시 운임·요금 자율화
  - (현황) 운송원가 급등에 따른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인상요인이 적시에 반영된 합리적인 운임·요금 조정이 필요하나, 택시요금은 사실상 인가제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강력 규제
  - (건의) 신고제(여객법 제8조) 취지에 맞게 택시요금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자율화하고, 현재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견청취 및 심의·의결 절차 제외
- ② 택시 감차사업 촉진
  - (현황)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
  - (건의) ①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계획 수립 촉구
  - ② 택시 감차보상 인센티브를 정액제에서 감차보상금 대비 정률제로 개선
  - ③ 감차보상비 현실화 등 현실적인 감차지원 마련

## 6 운전적성정밀검사 인프라 구축 및 재정 지원

- ① 신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추가 건립
  - (현황) 상주·화성체험교육센터 개소 이후 체험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육수용능력 한계 도달
  - (건의)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대비 및 수검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규 체험센터 2개소 확충
  - \* 교육수요 현황 : '20년(48,984명) → '25년(96,455명)
- ②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수검비용 지원
  - (현황) LPG 연료비 폭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익급감에 자격유지검사 수검 부담 가중(만 70세 이상의 경우 매년 1회 수검)
  - (건의) 열악한 영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자격유지검사 수검비용(2만원) 전액 지원



## 2022년도 주요사업

### 1 택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및 경쟁력 확보

- **공정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 특정업체의 플랫폼 택시 시장독점 타개 및 방지대책 마련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별 서비스 차등화를 통한 각 사업 간 영업권 보장 및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 공정한 배차기준 설정, 중개요금 조정 등을 위한 플랫폼 운송중개사업(Type 3)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제도화
  - 택시업계·국회·정부·플랫폼 업체 간 상생협의체 구성
- **택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 심야시간대(22:00~06:00) 통행 규정속도 개선(50km → 60km, 30km → 40km)
  -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제한거리 완화(10m 이내 → 5m 이내)
  - 여객 승·하차에 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 주정차 허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충당연한 연장**
  - 개인택시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개선 건의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행정처분 개선**
  - 개인택시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행정 처분 개선(1차위반 : 감차명령 → 1차위반 : 사업일부정지) 건의
- **택시 승차대 설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택시 승차대 실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 가능한 장소에 승차대 또는 포켓승차대 확충
- **화물자동차 불법여객운송영업 행위 근절 추진**
  -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승차정원 제한 (3명 이하)과 적재면적 제한(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 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을 최대적재량이 800킬로그램 미만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적용
  -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기준(중량 20kg, 용적 4만㎤) 허용량 위반 처벌기준을 화물운수종사자까지 확대 적용
- **차종다변화로 택시 서비스 다양화**
  - 전기차 등 제원(배기량, 배터리용량, 차량크기 등)에 따라 구분되는 택시업종의 합리적 개편방안 건의

- **승합형 대형택시(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전국 확대 시행**
  - 군 지역 승합형 대형택시 허용을 통한 수요응답형 택시 도입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 기틀마련 ※ 특별시·광역시에는 2016. 2. 23 시행

### 2 다양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개선 추진

- **간이과세자 개인택시차량 구입 부가세 면제 적용기간 연장**
  - '22.12.31.까지의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구매 시 부가 가치세 면제 적용 일몰기한 연장 추진
- **친환경택시 재정지원 확대 추진**
  -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구축 등 충전인프라 확대 건의
  - 친환경 택시 대상 구매 보조금\* 및 충전요금 할인 등 정부 재정지원 강화 건의
    - \* 친환경택시 전용 보조금 예산 별도 편성 건의
  - 친환경 택시 배터리 보증기간(10년, 20만km) 확대 정책 건의
- **LPG(부탄) 가격 안정화 대책마련 추진**
  - LPG(부탄)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 고유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 시 유가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토록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및 연장기간 확대(2~3년)**
  -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기한을 연장하고, 해당 연장기간을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추진
- **택시 차량구입 시 취득세 경감 기한 연장 추진**
  - 개인택시 차량구입 시 취득세(100분의 50) 경감 기한 지속 연장 및 일몰 기한 기존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 추진
- **감염병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강화**
  - 소상공인 대상 재난 지원금 사업 시 개인택시사업자 우선 지급 및 매출과 무관하게 전 개인택시사업자에 지급 추진
  - 개인택시 대상 감염병 예방물품 우선 무상지원 건의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추진**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일몰 기한 지속 연장 추진
- **택시운임·요금 조정 제도 개선**
  - 훈령으로 규정된 택시운임·요금 조정원칙을 법령으로 상향
  - 지자체는 2년마다 택시운임·요금 조정 검토결과를 국토 교통부에 의무보고 및 조정

## LPG 가격 폭등 100만 택시가족 다 죽는다! 정부는 택시연료 LPG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의 급감으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의 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서민연료이자 택시산업의 주연료인 LPG 가격이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상승, 환율 인상,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달 11월부터는 **작년 최저가인 725원 대비 약 48.6%가 오른 리터당 1,077원으로 폭등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통은 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0월 26일 '물가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해소를 위해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하여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택시업계에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LP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이 그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미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감면을 받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감소로 상대적 역차별이라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산업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가 반영된 유류세 인하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LPG 연료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유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이미 건의('21.9.23, 10.29.)한 바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동일한 유가보조금 지급 유지와 더불어 물가인상 반**

**영하여 택시요금 현실화하라!**

현행 택시운임은 경영측면의 수익성이 아닌 준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성이 강조된 택시요금으로 관리되어, 관할관청이 2년 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년간 단 1회 조정**에 그쳐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조정주기로 인상요인을 한번에 반영·조정함**으로써 택시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이용승객과 택시업계 모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LPG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①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②유류세 한시적 인하 시 기존 유가보조금 동일 지급, ③물가인상분이 반영한 택시운임·요금의 현실화**와 이를 위한 **택시운임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2.

○ 차량 안전보조장치(ADAS) 장착 정부지원 사업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택시운수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차량에 대하여 안전보조장치(ADAS: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정부지원 사업 건의

○ 개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제도 개선

- 신규 개인택시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인정하여 미적용 기간 동안의 우대 수수료율 소급적용토록 개선 건의
- 영세가맹점 회원의 교통카드(선불·후불) 수수료 개선 건의

##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항목	2022년예산	2021년예산	증감
세입	1,982,368,000	1,982,051,800	316,200
회비	1,681,368,000	1,681,051,800	316,200
이월금	300,000,000	300,000,000	-
기타수입	1,000,000	1,000,000	-

### 3 택시 서비스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

○ 플랫폼운송중개사업(Type3)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

- 다양한 부가서비스 도입, 이용승객 편의증진, 택시 플랫폼 폼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통해 택시 서비스 향상 도모

○ 교통안전교육 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 상주·화성시 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추가 확충 및 관련 재정지원 확대

○ 운전적성정밀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특별검사대상자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 자격유지검사 수검비용 재정지원 및 이동식검사 버스 운영지역 확대 추진

○ 택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 승객폭행 및 코로나 감염예방 보호대책을 위한 차량 내 보호격벽 설치비용 재정 지원 건의
-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 관련 재정지원(카드결제 단말기, 택시영상기록장치, 대차지원 등) 건의

○ 개인택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택시부제 제도 개선 추진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택시 수요공급의 조율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등 실증분석을 통한 택시부제 제도 개선책 마련 및 지자체 건의

○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 운영개선

- 택시운행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구축사업 재정지원 건의
- 택시운행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토대로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 건의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 제도화

- 정부 및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조례 마련 촉구
  -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구역, 시설기준 및 주·정차구역 등
- 이용자 통행원칙 마련 및 안전교육 강화 건의

○ 제조사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및 A/S건의 적극추진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강구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 유도

- 좌석안전띠 매기 캠페인 적극 전개
- 정지선 지키기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개인택시사업자 단정한 복장착용 유도
- 승차거부 행위 금지 및 친절 캠페인 강화
- 택시 호출요금 적정화 (가맹택시 및 중개요금 등)

### 4 홍보·대외활동 강화

○ 개인택시 조합원 사기양양을 위한 포상 확대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홍보 및 행사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
- 마스크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연합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사회복지사업

- 노인정,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 정부의 경제대책에 적극 협조

- 감염병 예방활동 적극 참여(마스크 착용, 소독·청결)
- 사무실 에너지 절약
- 사무용품 절약 및 재활용

세출	1,982,368,000	1,982,051,800	316,200
1.사무비	1,106,580,000	1,086,492,580	20,087,420
○ 인건비	716,045,200	702,458,980	13,586,220
· 급료	356,688,600	360,231,600	-3,543,000
· 상여금	217,612,100	215,012,400	2,599,700
· 수당	141,744,500	127,214,980	14,529,520
○ 물건비	390,534,800	384,033,600	6,501,200
· 여비	4,680,000	4,680,000	-
· 공공요금	12,648,000	12,648,000	-
· 제세공과금	5,090,000	5,090,000	-
· 차량유지비	42,720,000	42,720,000	-
· 수용비	22,300,000	22,300,000	-
· 수수료 수선비	6,660,000	6,660,000	-
· 시설관리유지비	56,200,000	56,200,000	-
· 복리후생비	240,236,800	233,735,600	6,501,200
2.사업비	787,970,000	757,970,000	30,000,000
○ 물건비	217,920,000	217,920,000	-
· 여비	50,900,000	50,900,000	-
· 수용비	111,020,000	111,020,000	-
· 광고선전비	56,000,000	56,000,000	-
○ 판공비	291,000,000	291,000,000	-
· 기관운영판공비	54,000,000	54,000,000	-
· 특별활동비	165,000,000	165,000,000	-
· 대외특수활동비	72,000,000	72,000,000	-
○ 이용료	30,000,000	30,000,000	-
· 수수료	30,000,000	30,000,000	-
○ 선진화지원비	249,050,000	219,050,000	30,000,000
· 회의비	166,550,000	166,550,000	-
· 사회복지비	10,000,000	10,000,000	-
· 포상비	72,500,000	42,500,000	30,000,000
3.재산취득비	25,000,000	25,000,000	-
○ 재산취득비	25,000,000	25,000,000	-
· 재산구입비	25,000,000	25,000,000	-
4.분담금	3,600,000	3,600,000	-
○ 분담금	3,600,000	3,600,000	-
· 단체회비분담금	3,600,000	3,600,000	-
5.적립금	30,000,000	30,000,000	-
○ 적립금	30,000,000	30,000,000	-
· 퇴직적립금	30,000,000	30,000,000	-
6.예비비	29,218,000	78,989,220	-49,771,220
○ 예비비	29,218,000	78,989,220	-49,771,220
· 예비비	29,218,000	78,989,220	-49,771,220

[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횡포, 개인택시업계가 차단한다! ]

# 전국 16개 시·도 이사장, 청와대·국회·카카오 본사에서 1인 시위 소상공인·대리운전업계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공동 촉구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카카오모빌리티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개인택시 업계가 또 다시 청와대와 국회,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갔다.

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청와대와 국회,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시장지배력을 내세운 횡포를 규탄했다.

소상공인, 대리운전 등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타 업종과도 연계해 택시를 비롯한 소상공인 업권 침탈 방지를 위한 법제화도 시도하고 있다.

◇ 소상공인 등과 연계해 카카오 규탄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문어발식 사업 확장 못매 맞자, 택시업계 기망하는 상생안 내놓아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비난 잠재우려는 술책에 불과해 국회에 독점 규제 법안 제정·공정위에는 불공정 처벌 강력 촉구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불공정한 배차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통적인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를 답습하면서 국회와 정부, 언론 등으로부터 못매를 맞고 있는 카카오가 최근 여러 상생안을 제시하며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과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개인택시 업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

한 상생안이 허구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하며 ‘카카오 독점 규제 법안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합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택시의 조속한 안착과 상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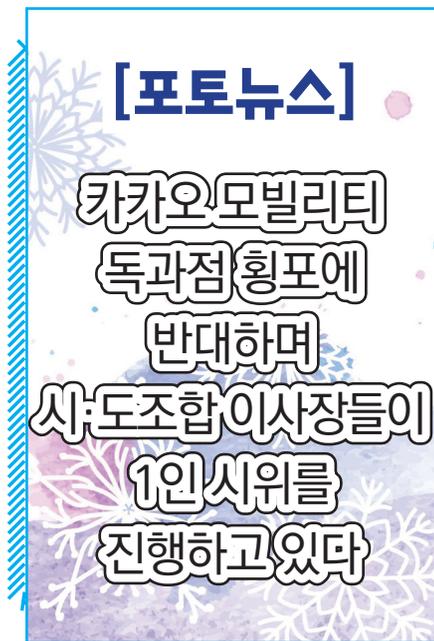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압도적인 자본력을 무기로 내세워 국내 택시호출 시장의 80~90%를 장악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비난을

자초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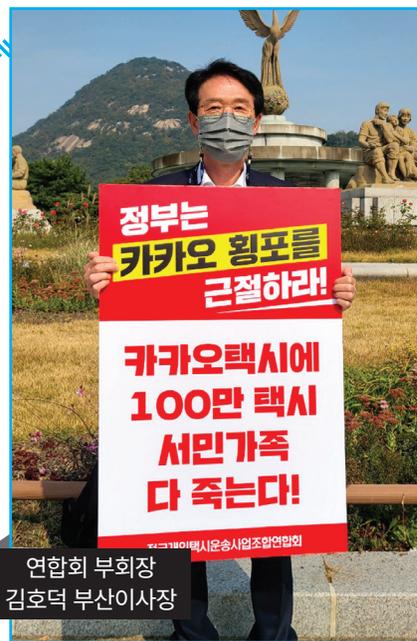
택시 가맹사업을 활용하여 승차거부 없는 강제배차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높은 플랫폼운송 중개요금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과도하게 높은 가맹수수료를 택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월 10만원에 달하는 프로 멤버십 유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출시하는 등의 독과점 횡포를 일삼았다.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횡포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등 상생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카카오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연합회 부회장 차순선 서울이사장



연합회 부회장 김호덕 부산이사장



김성중 경기부이사장



연합회 부회장 여근하 전남이사장



정창기 대구이사장



김승일 인천이사장



국승두 광주이사장

하지만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택시업계 등 소상공인과 언론, 정부, 국회의 전 방위적인 비판이 일자 골목상권 철수를 발표했다.

택시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안을 내놓았다.

◇ 국민적 비난 잠재우려는 꿈수에 불과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상생안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불공정 배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오히려 택시업계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는 프로멤버십 제도가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폭 인하에 그치는 것 또한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역시 지역별 사탕

발림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업계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택시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처벌하고 독점 규제법안 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택시 4개 단체의 진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더 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하며 잇속을 챙기기 위해 서민 경제의 고혈을 빨아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플랫폼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개인택시연합회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의견문이다.

'우리 택시업계는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 새로이 도입된 플랫폼 택시의 조속한 안착과 상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택시가족의 기대와 달리 택시시장은 특정 플랫폼업체에 의해 장악되고 택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는 택시업계와의 상생은 외면한 채 기업의 상장(IPO)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해 왔다.

그동안 성명서 등을 통한 택시업계의 문제제기와 대화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택시업계와 소상공인, 언론과 정부, 국회의 전 방위적 비판에 직면해서야 골목상권에서의 철수를 발표함과 동시에,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로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데 그치는 것

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또한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고율의 수수료 문제 등은 외면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여론몰이를 통해 국민과 택시업계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법률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함으로써 더 이상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좌지우지 하며 잇속을 챙기기 위해 서민경제의 고혈을 빨아대는 것을 방지하고, 더 이상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적 횡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기주 대전이사장



백형선 울산이사장



김주원 강원이사장



한중석 충북이사장



홍선기 충남이사장



박상익 전북이사장



김광호 경북이사장



김정곤 경남이사장

# 국정감사에서 머리숙인 카카오 총수, '수수료 인하' 약속

박권수 회장·조합 이사장, 국회 국토위원장·민주당 등에 카카오 횡포 호소  
 카카오모빌리티 류금선 사장 '상생 모색 과정 잘못된 부분 시정' 국감 진술  
 국감 이후에도 소상공인 등과 연합,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 제정 선도



▲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조오섭 의원(사진 왼쪽부터), 전남조합 여근하 이사장, 국회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 광주조합 국승두 이사장, 전북조합 박상익 이사장, 박권수 연합회장이 카카오 독과점 횡포 문제점을 논의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이주환 의원(사진 왼쪽부터), 박권수 연합회장, 국회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 차순선 연합회부회장 서울조합 이사장, 김호덕 연합회부회장 부산조합 이사장이 독과점 횡포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

카카오 총수인 김범수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두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금선 대표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모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관련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횡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면담하고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과 문제점 지적을 주문했다.

그 과정에서 부산개인택시조합 김호덕 이사장과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이 직접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횡포를 규탄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국정감사에 앞서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4개 단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플랫폼 대기업 횡포 문제를 부각시키고 플랫폼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불공정 행위 시정 등을 추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을 중심으로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해 8월과 9월 더불어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 을지로위원회를 방문해 국정감사 정책 질의에 대비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카카오T블루 불공정 배차의 문제점과 공정위에 제출한 택시업계의 진정 내용을 설명했고 민주당 노조 김성한 처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

로 출석해 불공정 배차 현장에 대한 진술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했다.

9월 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배차 및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문제점을 설명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카카오T 불공정 배차를 포함해 다양한 택시 업계 현안 자료를 제공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특히 박권수 연합회장은 차순선 서울조합 이사장, 김호덕 부산조합 이사장, 국승두 광주조합 이사장, 여근하 전남조합 이사장, 박상익 전북조합 이사장 등과 국회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은 두 차례 면담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독점방지를 위한 택시업계 상생방안과 택시 산업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 여러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모빌리티 류금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카카오T블루의 불공정 배차 시스템과 과도한 호출 이용료 등 다양한 독과점 횡포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한편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합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국정감사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 추가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카카오 불공정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내용이다.

## ◆ 정무위원회(2021.10.5.)

- (질의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증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

- 가맹택시는 수수료를 20% 받고, 비가맹택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음. 무료서비스로 경쟁 업체를 없애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독과점 행위 아닌지?
-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파트너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카카오택시는 이 과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수료(20%)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며 카카오모빌리티도 1년에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음. 다만, 수수료율 20%에서 실질적으로 5% 정도만 부담토록 돌려주고 있음.
- 가맹수수료 20% 중 제휴비용 16.7%를 환급 중인데, 처음부터 차액인 3.3%만 부과하면 되지 왜 20% 부과 후에 환급하는지?
- 현재는 사업이 정착되지 않아 과정을 밟아야 하는 시점으로 수수료율 5% 이하로 갈 수 있지만, 아직 해당 단계까지는 오지 못함.
-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속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수익구조가 원원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현재 초기 단계로써 실험 중임.
- 향후 시정방안이 나올 것이며, 플랫폼 이용자가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이 점차



▲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게 불공정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함.

- (질의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참고인) 김성한, 민주당시노동조합 사무처장

- 손님이 부르면 가까이 있는 카카오T 일반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카카오T블루 택시가 오는 현상의 이유는?
-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배차시스템이 다름. 가맹택시는 별도 버튼이나 목적지 표시가 없어 몇 초 만에 자동배차되는 반면, 비가맹택시는 수동배차 시스템으로 목적지가 표시되어 기사가 선택 가능.

② 목적지 표시를 하지않고 콜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닌지?

- 모든 택시에 가맹·비가맹 구분하지 않고 목적지 표시 없이 자동배차 하면, 배차 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배차는 근절 가능.
- 그러나 카카오가 배차시스템을 가맹·비가맹 차이를 두고 그 속에서 배차 성공률에 큰 차이를 발생시켜 문제 야기.
- 불공정배차 문제,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 이것이 큰 화두로 택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생안에는 그 내용이 없음.

- 그리고 프로멤버십 같은 경우 비가맹 기사들에 대해서도 유료화하여 갈등과 차별 조장,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카카오는 이용료 인하만 발표.
- 또 한 가지 문제는 가맹택시사업자협회와 상생 대화인데, 가맹택시사용자만 협의회를 통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계속 불공정배차를 통해서 가맹사업주를 밀어주겠다는 것.
- 택시 4개 단체가 과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음에도, 카카오가 가맹사업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은 택시 내부 갈등 조장하고 불공정 문제는 계속 반복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10.5.)

- (질의의원)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갑
- (증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① 피크시간대 일반택시 호출이 어렵고, 최대 3천원 추가비용으로 카카오 블루 호출을 해야 배차가 됨. 카카오블루와 일반호출 비용을 동일하게 개선할 생각은 없는 지?

- 일반호출이 안 되는 것은 피크타임에 실제로 배차 가능한 차량이 부족한 문제와 기사들이 선택적으로 콜을 수락하는 부분도 작용함.
- 이용료 조정에 대해 즉답은 힘드나 해당 사항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자(승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음.

② 카카오블루 가맹택시 수수료 20% 인하 가능한지?

- 블루 호출의 경우, 호출되는 것 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당사에서 사전 투자비가 발생한 부분도 있음.
- 이로 인해, 수수료 인하는 즉답하기 어렵지만, 현재 가맹점의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해 가맹점 협의회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③ 가맹계약 갱신기간(5년)과 제휴서비스 갱신기간(3개월)을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게 아닌지?

-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여, 두 계약의 갱신 기간을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도록 변경하기로 결정함.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10.7.)



▲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류궁선 대표가 택시업계와의 상생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 (질의의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구갑
- (증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

① 시장지배율이 올라가더라도 현재 수수료 정책을 유지할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인하토록 노력할 것인지?

-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김에 따라 향후 수수료 인하를 확실히 약속함.

② 카카오 프로멤버십을 통해 택시기사 간 차별·경쟁구도를 만들며,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정책을 계속 펼 것인지?

- 플랫폼은 이용자(승객)의 편익을 높이고, 서비스 공급자(택시)의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라 생각함.

③ 플랫폼 기업이 해당 사업(택시)에 직업 참여하여 경쟁우위를 점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나, 플랫폼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함.

- (질의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시과천시
- (증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카카오 배차 알고리즘 미공개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한 만큼 영업 비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고려하고 있는지?

- 내부 사정상 공개하기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공개 중이며,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음.

- (질의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증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 /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택시 수수료 김범수 의장 진술(플랫폼 이용자 활성화 시 수수료 인하 가능)과 류궁선 대표(즉답 어려움) 진술이 다름. 택시 수수료 인하 할 것인지?

- (김범수 의장) 택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플랫폼·승객·택시 모두가 현재 이익을 보는 단계가 아님.
- (류궁선 대표) 가맹점들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며, 다양한 방식의 절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임. 수수료 인하와 관련하여 즉답은 힘들지만,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 외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해 상생을 모색하겠음.

- (질의의원) 류호정, 정의당(비례대표)
- (증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개 단체와 소통·협의를 진행 중'이라 했으나, 국토부 확인결과 일체 협의는 없었음. 오히려 언론을 통해 택시단체가 상생협의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상생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음.

## ◆ 국토교통위원회(2021.10.8.)

(질의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시을

(증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①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현상과 관련하여 배차 알고리즘을 중립적 기관을 통해 검증 받을 의향은 없는 지?

○ 일부 공개는 하고 있으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음.

②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 택시 수수료 인하 진술과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측의 후속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 택시업계와 면밀히 협의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질의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서구

(증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가맹택시사업자 수수료와 비가맹택시 대상 프로모션, 카카오프로 멤버십, 카카오톨블루 호출비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의 본 역할은 '거래 주선'인데, 플랫폼이 역으로 '뺑'을 뜯는 것이 아닌 지?

○ 해당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공공성과 책임을 통감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하고 논의하여 개선하겠음.

(질의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참고인)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 (참고인 질의)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는 현상과 프로모션 폐지에 대한 입장은?

○ 수수료보다 근본적인 건 불공정배차이며, 가맹과 비가맹택시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배차하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될 사항임.

(질의의원) 심상정, 정의당

(증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① 카카오그룹이 혁신기업이 맞는지? 콜 몰아주기, 프로모션(과도한 유료화) 등 독과점 행위 시정할 것인지?

○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사회적 기대감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업계와 협상자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상생협의를 진행하겠음.

② 플랫폼 산업 관련 별도의 청문회 개최 요청

○ (이현승 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검토해보겠음.

(질의의원) 정동만, 국민의힘

(참고인)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카카오 수수료 체계, 콜 몰아주기 등 문제에 대한 현장의 입장은?

○ 김범수 의장은 플랫폼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하나, 이미 택시 시장을 독과점한 상태이며, 이러한 대기업 횡포로 택시 현장은 고사 상태임.

(질의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참고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카카오톨 호출 취소 수수료 및 배회 영업에 대한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 거리에 비례해 호출 수수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수수료는 가맹브랜드를 관리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것임.



▲ 연합회 부회장 김호덕 부산조합 이사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카카로모빌리티의 불공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고인)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적이 없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국토위 이름으로 고발 요청. (참고인 질의) 비가맹·가맹택시 매출비교, 콜 몰아주기, 국토교통부요청사항 등 진술 요청

○ (이현승 위원장) 증인 위증 시 여야 간사 합의 후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

○ (조합원) 플랫폼 기업이 가맹택시 또는 비가맹택시 중 1가지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함.

(질의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참고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민관협의체 등 택시단체와 소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것인지?

○ 올해 안에 택시단체와 협의시스템을 구축하겠음.

(질의의원) 김은혜, 국민의 힘

(참고인)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프로모션을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 택시업계와 협의하겠음.

(질의의원) 이현승, 국민의 힘

(참고인)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참고인 질의) 추가 진술 요청 및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상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까지 국토위에 제출할 것인지?

○ (부산이사장) 공정한 배차실현, 카카오톨 유료화 개선. 플랫폼 규제 관련 조속한 입법화 및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즉각 사과 요청

○ (류궁선 대표)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협조를 하겠으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들을 한 달 이내 국토교통위에 제출토록 하겠음.

〈취재·2021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 기획부장 김도길〉



## [경기조합] 경기개인택시조합, 범국민 KF94마스크 무료 나눔 행사

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과 이필근 의원 동참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진섭)이 경기도버스조합, 경기도자동차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해 11월 16일 부천시를 시작으로 29일 수원역 광장에서 '팬데믹 극복 범국민 KF94 마스크 무료 나눔어 주기 캠페인'을 열었다.

지난 해 9월 1일 경기도개인택시조합과 종합기차 FM88(대표 서승원)이 체결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KF94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 줌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앞장서서 코로나19 예방과 승객의 개인 방역에 도움이 되고 개인택시의 이미지 제고와 승객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과 이필근 의원이 참석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직접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날 김명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개인택시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섭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점점 희박해지는 국민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올해 4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15만장의 KF94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



▲ 팬데믹 극복 범국민 KF94 마스크 무료 나눔어 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진섭 이사장

라고 설명했다.

또한 "팬데믹 위기상황을 극복해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기회복과 도민들의 사

회활동에 기여하도록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공제조합, 지로 발송 대체를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프로세스 구축

조합원 분담금 납부, 계약 고지 등 스마트폰 처리 업무 협약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지난 달 21일 시루정보㈜와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지로 발송을 통해 계약사항을 안내하고 지로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지로를 이용해 직접 분담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CMS, 무통장 송금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납부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사회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추세 확산으로 전자고지납부서비스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제조합에서도 계약사항 고지는 물론 분담금(보험료) 납부 등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왔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은 ▲약관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및 고지 ▲계약사항에 대한 설명 및 분담금 납부 ▲공제증서 교부 요청 및 수정 등의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진 공제 서비스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방문 응대, 전화 응대, 약관 발송, 고지서 발송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



▲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이 시루정보 측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다"고 설명하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

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글·공제조합>

##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금 환급 신청 공고

공제조합에 가입할 당시, 가입금을 납입한 조합원이 공제가입 자격을 상실(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 폐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금을 환급\*해드립니다. \* 관련근거 : 공제규정 제7조(가입금의 납입 및 환급)

만일, 가입금 환급대상자 중에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 문의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b>환급 신청금액</b>	가입금 30,000원
<b>환급 신청방법</b>	방문 신청시 : 신분증, 본인통장 사본(계좌번호) 유선 신청시 : 본인 확인 및 본인 계좌번호
<b>환급 신청장소</b>	각 지부 사무실

**지부 사무실 연락처 현황**

서울지부 (02) 2140-3800	울산지부 (052) 211-2761	전북지부 (063) 214-5951
부산지부 (051) 500-8600	경기지부 (031) 240-3300	전남지부 (061) 800-8080
대구지부 (053) 764-0621	강원지부 (033) 242-3652	경북지부 (053) 753-3846
인천지부 (032) 577-4281	충북지부 (043) 221-2382	경남지부 (055) 276-0900
광주지부 (062) 576-9100	충남지부 (041) 334-8027	제주지부 (064) 744-2795
대전지부 (042) 583-8040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 안전속도 5030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켜줍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



## 안전속도 5030 이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정책입니다.

## 제한속도를 시속 10km만 줄어도?



**13.3%** 감소

사고 건수



**20%p** 감소

중상 가능성



**2분** 차이

통행 시간

\* 안전속도 5030 도입 전 후 효과 분석 및 충돌 실험 결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